

진흥회 활동

제21회 창립기념 행사



본회는 지난 4월20일 제21회 창립일을 맞이하여 간소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과 아울러 모든 임·직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욱 분투할 것을 다짐하였다.

— 장기근속직원 포상

20년 근속 : 부 장 조규엽

부 장 신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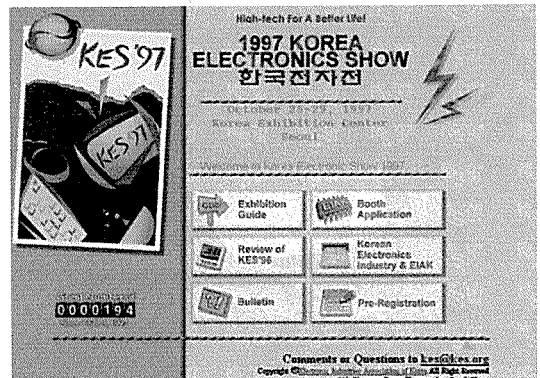
10년 근속 : 부 장 최영훈

과 장 박병철

과 장 박수복

과 장 유중현

'97 한국전자전(KES '97)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본회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KOEX에서 개최되는 '97 한국전자전(KES '97)의 효과적인 해외홍보와 외국인의 참관/참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홈페이지(<http://kes.org>)를 개설하여 4월 1일부터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KES '97에 대한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KES '97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자전 안내(Exhibition Guide)», 「참가 신청(Booth Application)», 「'96 한국전자전 개최실적(Review of KES '96)», 「한국의 전자산업 및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소개(Korean Electronics Industry & EIAK)», 「게시판(Bulletin)», 「바이어 참관등록(Pre-Registration)」 등 6개의 주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전 안내(Exhibition Guide)」메뉴에는 해외 참관/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 개요(Outline of KES '97)», 「전시관 소개(Pavilions by Product)», 「전시장 위치안내(Transportation)», 「호텔 및 여행(Hotels & Travel)», 「참가관련 용역업체(Contractors)」 등의 소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바이어 참관등록(Pre-Registration)」 매뉴에서는 참관희망 바이어들이 관심품목 등 세부사항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등록된다.

전자진흥회는 이러한 개별 바이어 정보를 해당 참가업체에 제공하여 전자전참가를 통해 더욱 많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신산업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본회 산업전자과에서는 '97년도 통신산업 협의회 정기회의를 4월23일 팔레스호텔에서 LG정보통신, 해태전자, KEC, 대우통신, 한화정보통신, KDS 등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내용으로는

1) 최근 통신산업 동향 보고

'96년의 시장규모는 약 73억불(5조 8,372억원)로 5.9%의 저성장하였으나, '97년은 신규통신사업자들의 시스템구축 본격화로 큰 성장이 기대된다.

〈통신기기 수급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95	'96	증가율(%)	
				'95/'94	'96/'95
공 급	생 산	5,015	4,990	36.3	-0.5
	수 입	1,814	2,267 (317)	21.8	23.1 (-0.5)
수 요	수 출	2,272	2,317 (350)	17.3	1.1 (16.3)
	내 수	4,564	4,940	39.9	8.2

주 : ()는 '97년 2월 누계

2) '96년도 협의회 사업실적보고 및 '97년도 사업 계획심의

'97년의 주요사업 계획으로 이동통신기기용 핵심부품 기술개발촉진, 부품 및 기술의 표준화, 공용화, 해외시장개척지원, 국산기기 보급 활성화 통신산업

증장기 수요예측 및 동향조사, 규제완화(철폐) 및 제도개선 국제특허분쟁,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의 업계협력강화를 도모하고 자동화추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견학 사업추진,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적절한 조정추진, 협의회 모임의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하였다.

이외에 이동전화 등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 증명제도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으며 국내외적인 환경이 우리 통신기기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되어 관세 감면대상 또는 인하대상품목 도출후 건의 등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였다.

산업고도화 촉진을 위해 공장 자동화 들, 첨단기술 산업 등의 관세 감면요청

본회는 최근 정부에 대해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고비용 생산구조의 과도기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내구 소비재의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산화가 안된 자동화 및 부품소재 등 생산재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제도의 연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건의하였다.

진흥회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용고지가, 고물가 등 이른바 고비용 생산구조가 급진전되어 생산 주종품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수출이 저조하고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다가 내수경기가 부진, 극심한 불황을 보여 우리 산업전반이 지금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진흥회는 우리 전자산업의 외형 생산액이 '96년에 456억불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지만 질적인 면에서 생산품목의 구조를 보면 가정용기기와 그 부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등 개도국들까지 정보통신 및 방송, 의료, 국방,

계측 등 고부가가치의 산업용 전자기기가 대중을 이루고 있어 우리 전자산업의 품목구조를 기술집약 품목 중심으로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전자산업의 수급동향]

구 분		'85	'95	'96	증감율(%)	
					'85/'95	'95/'96
생 산	10억원	6,119	49,116	49,338	23.2	0.5
수 입	백만불	3,040	25,072	27,564	23.4	9.9
수 출	백만불	4,352	43,592	41,223	25.9	△5.4
시 판	10억원	1,650	10,269	10,574	20.0	3.0

(자료 : EIAK)

['96년 전자산업의 생산품목 구조 비교]

구 분	세계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폴	
전자산업 생산액(억불)	9,371	456	2,741	2,560	471	276	391	
구 성 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생산품목	가정용기기	(9)	(17)	(3)	(9)	(7)	(4)	(7)
구성비율	산업용기기	(60)	(26)	(70)	(50)	(71)	(66)	(61)
(%)	전자부품	(31)	(57)	(27)	(41)	(22)	(30)	(32)

자료 :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96

이를 위해서는 초집적 반도체, 정보통신시스템, 이동 및 위성 통신기기, 액정소자, 차세대전지 고정밀 부품 및 재료 등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화 생산 시설제와 부품재료의 관세 부담경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집약분야는 경쟁의 상대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로 이들 나라는 관련산업이 이미 국산화되어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관세를 자체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아(선진국 : 0%~3%, 한국 : 8%) 후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경쟁이 곤란한 여건에 있다.

그런데 국산화가 안된 자동화 생산시설은 그동안 관세 감면제를 시행해오다 내년에 폐지기로 되어있어, 실행관세가 올해 6.4%에서 내년에는 8.0%로 올라 오히려 관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어 업계의 산업고도화 노력에 역행될 우려가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자동화 생산시설 등의 관세를 하향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분야의 국산화가 진전되고 있고 관세재정의 감소도 우려되는 만큼 국산화가 안된 분야에 한해 현행 관세 감면율(20%)을 상향조정(80%)해 이를 연장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식으로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진흥회는 또한 이와함께 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생산주종품이면서 최근에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칼라 TV, 오디오, VCR, 소형가전제품 등에 대해 현행 관세율(8%)을 상향조정해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하고 관세감면제로 인한 재정보전으로 충당해 줄것을 아울러 건의하였다.

(주요 전자제품의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품 목 명	'96(1~12월)		'97(1~12월)	
		증감율(%)		증감율(%)
칼라 T V	36	65.4	9	117.6
라 디 오	19	158.8	5	62.1
V C R	56	-10.8	7	64.7
카 세 트	120	15.7	26	24.5
반 송 기 기	349	32.2	32	54.6
교 환 기	65	8.4	10	73.9

(자료 : EIAK)

마그네트론 기술표준화 워크샵 개최

본회 형명등록과에서는 지난 4월24일~25일 1박

2일에 걸쳐 대전 국제 특허 연수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마그네트론 기술 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안전

으로는 전자렌지용 마그네트론 사용법 등 5개규격서 표준화작업과 한·일마그네트론 기술위원회간 교류에 관해 논의하였다.

1) 마그네트론의 기술표준화 추진

○ 대상 : 전자렌지용 마그네트론 사용법 등 5개 규격서

작업회수	대 상 규 격 서	결 과
3차	① 전자렌지용 마그네트론 사용법 ② 마그네트론 취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③ 마그네트론 검사규정	• 넘버 및 KS규격표시 등 미비사항에 대해 사무국에서 책임교정후, 인쇄의뢰 키로 함(10부/각사당)
2차	④ 연속과 마그네트론 시험방법	• 일본과의 교류회 이후 재검토
1차	⑤ 등록사양서 기재요령	”

○ 추진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참 고 규 격
마그네트론 검사규정	○ 규격넘버 기입 ○ 별첨에 EIAK 제정규격 명기	○ EIAJ ED-1101 (전자관 검사 규정)
마그네트론 취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 규격넘버 기입 ○ EIAK 참고규격 명기	○ EIAJ EDR-1101(전자관 취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전자렌지용 마그네트론 사용법	○ 규격넘버 기입	○ EIAJ EDR-1501 (전자렌지용 마그네트론 사용법)
연속과 마그네트론 시험방법	○ P.10 EIAJ ET-41A→KS규격 기입 ○ P.15 JIS B 8300→KS규격기입 ○ “해설” 삭제	○ EIAJ ED-1501 (연속과 마그네트론 시험방법)
연속과 마그네트론 등록사양서 기재요령	○ 차기회의시 재검토	○ EDEREC/GET-3(연속과 마그네트론 등록사양서 기재요령)

2) 한·일 마그네트론 기술위원회간 교류회 개최 논의

○ 기간 및 장소(예정) : '97. 5.26(월)~'97.5.31(토), 도쿄 or 오사카

○ 내용

- 동 기간중 양국 마그네트론위원회간 교류 및 세미나 전시회 참관 등

○ 세부안전 도출

- 한일 마그네트론 정례교류 추진
- EMI 동향
- 기술교류
- 현안 문제점에 대한 기술과제 도출 및 연구 세미나

가전업계 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대책회의

본회 가전과에서는 최근의 가전업계 현안문제인 가전제품 수입급증 대책, APEC내 조기관세 무세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협의키 위해 지난 4일, 팔레스호텔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업계 관련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내용으로는

① 소니TV 수입급증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협의
- 소니TV의 수입급증과 관련하여 통상산업부 등에 종합대책을 건의키로 하고 '97. 4. 14(월)에 개최되는 기자간담회에서 소니TV의 품질상의 문제점 등을 홍보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LG전자, 삼성전자에서 각각 국산 및 외국산TV 1대씩을 본회에 설치토록 하고 이에대한 설명을 위해 기술자 1명씩을 4. 14일 본회에 파견키로 하였다.

② 수입상에 대한 검찰 고발건은 언론홍보 후 주변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키로 하였다.

③ APEC내 조기 무관세화와 관련하여 동 사안이 가전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분석키로 하였다.

④ 에너지 비용표시제도 도입과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 및 품질 보증기간 축소 등 가전업계 애로 전달을 위해 업계 임원진과 본회 임원으로 하여금 대표단을 구성, 다음중에 통상산업부(에너지관리과), 재정경제원 등을 방문키로 하였다.

종합유선방송용 전송망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본회 산업전자과에서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부와 통상산업부에 다음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건의 하였다.

우리 진흥회는 국책 과제인 종합유선방송의 성공과, 나아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기본이 되는 전송기기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92년도에 CATV기기산업협의회(전송기기분과위원회, 방송기기분과위원회 등 3개분과로 구성)를 결성하고 간선증폭기, 컨버터, 광전송기기 등을 업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산케이블 TV 기기시범방송국 지원, 국산방송기기 전시회 개최, 국산케이블 TV기기시연회 개최, 국산기기카탈로그 및 운영백서 발간 보급, 국산기기 보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위와 같은 우리 업계 및 진흥회의 노력의 결과로 이 분야의 관련기자재가 상당부분 국산대체 되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발투자 지원과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국산화를 추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국산개발노력은, 지난 1차 전송망사업에 총 구축된 기자재 중 외산이 수억달러에 이르러, 그 성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을 뿐 아니라,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최근 극심한 무역역조 심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번의 제2차 전송망사업자 지정시에도 수천억원 이상의 큰 수요가 예상되는 관련기기 시장을 기대하고 지속적인 개발투자와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 거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협이 적은데다 우리 수요자들의 외산 선호도 등으로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산전송망기기산업의 발전과 나아가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의 기반이 되는 동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번 2차 전송망사업자 지정시에는 사업허가 신청자에 국산기기 채용권장 및 국산기기사용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배려를 건의하였다.

가전 환경정책 관련 간담회

본회 환경과에서는 지난 4월 10일 과천 거북성에서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과장,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관련 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리사이클센터 투자 및 운영방안 협의 및 회수, 재활용 사업추진 애로건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전3사가 지역별 리사이클센터 1개소씩 건립키로 합의를 하였으며 (LG전자 : 영남권 건립키로 잠정 협의(5월중 결과 통보), 대우전자 : 건립장소·시기를 내부 협의, 보고후 통보, 삼성전자 : 중부권 '97년말 준공 예정)

각사 투자관리, 공조체계 유지측면의 효율적 방안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 검토하여 리사이클센터 운영에 관해 신중히 검토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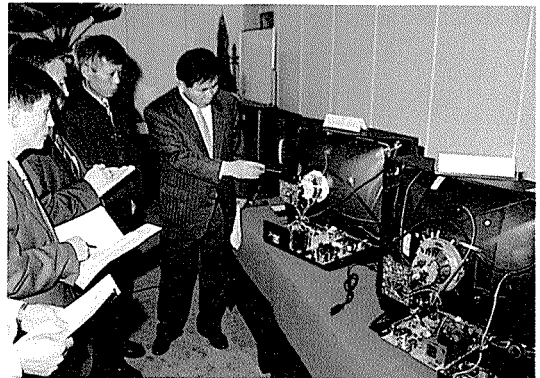
그리고 광역집하장은 리사이클센터 건립후, 입지·운영방안 등을 정밀분석하여 각사별 분담 건립키로 하였다.

(폐가전품 회수·재활용사업 추진상의 애로 건의)

- 1) 회수·재활용사업 추진상의 인·허가 완화
 - 재생처리를 주목적으로 처리되므로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
 - 민간 재활용업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적격재활용업체기준” 제시
- 2) 가전사의 회수차량이 갖추어야 할 인·허가 사항
 - 대리점 차량과 배송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계법령에 명시
- 3)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개선
 - 대상품목 : 세탁기, 에어컨, TV 등은 제외토록 조정
 - 부과기준 : 내구연수를 감안(10년), 판거판매 기준으로 개선
 - 예치금 운용을 해당업종 사업자 단체에 위임
 - 미반환예치금을 실제처리 및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우선지원

- 4)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제시
 - 폐가전품의 종합적인 처리 및 재활용 기준마련 제시
 - 재생원료의 수급안정책 수립
- 5) 가전업계 공동사업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리사이클센터 재활용 설비자금지원
 -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업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저가 소니TV에 대한 기자간담회 결과



본회 가전과에서는 지난 4월 14일 본회 회장실에서 매일경제 TV 등 언론계 기자들과 가전 3사의 업계 기술진들이 모인 가운데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저가의 소니 TV에 대한 수입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상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근절키 위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 저가 소니TV의 문제점 설명 및 시연회
 - 원산지 표시위반 등 실정법 위반사례
 - 음성다중 불가 등 기능상의 문제점
 - 전원회로 개조과정상의 문제점
 - A/S상의 문제점
 - 기타 환경·유통 등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었다.
- * 자세한 내용은 이달의 초점②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창립연월일
삼 원 금 속 공 업 (주)	1967. 5. 1
회 성 금 속 (주)	1974. 5. 1
(주) 웨 스투 시 스템	1984. 5. 1
(주) 성 민 전 자	1989. 5. 1
(주) 비 오	1989. 5. 1
중 앙 전 자 산 업 (주)	1978. 5. 2
LG 반 도 체 (주)	1989. 5. 2
동 국 종 합 전 자 (주)	1977. 5. 4
서 영 전 자 산 업 (주)	1989. 5. 4
대 광 조 명	1987. 5. 6
대 륙 전 선 (주)	1968. 5. 10
성 미 전 자 (주)	1980. 5. 10
LG 마 이 크 론 (주)	1983. 5. 10
(주) 룯 데 캐 논	1985. 5. 10
(주) 지 엠 피	1985. 5. 10
아 주 콘 트롤 시 스템 (주)	1994. 5. 10
(주) 자 원 메 디 칼	1985. 5. 11
두 고 전 자 (주)	1973. 5. 12
코 리 아 씨 키 트 시 스템	1983. 5. 12

회 사 명	창립연월일
(주) 메 텍 스	1976. 5. 13
효 성 중 공 업 (주)	1962. 5. 14
한 국 고 덴 시 (주)	1980. 5. 14
LG 전 선 (주)	1962. 5. 15
동 양 전 자 초 자 (주)	1973. 5. 15
하 가 전 자 (주)	1991. 5. 16
LG 하 니 웰 (주)	1984. 5. 18
코 리 아 트 랜 지 스투 시 스템	1993. 5. 19
동 원 전 자	1991. 5. 20
한 국 전 기 초 자 (주)	1974. 5. 23
재 너 널 시 스템 (주)	1987. 5. 25
이 수 세 라 믹 (주)	1987. 5. 25
(주) 한 국 안 테 나	1986. 5. 26
에 스프 리 정 공 (주)	1989. 5. 26
케이 디 씨 정 보 통 신 (주)	1991. 5. 27
(주) 효 성 생 활 산 업	1973. 5. 28
(주) 삼 정	1973. 5. 28
한 국 몰 렉 스 (주)	1984. 5. 31
텍 사 스 인 스투 루 먼 트 코	1988. 5. 31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

▶ (주)스마텔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

— 상 호

- 변경전 : 정풍물산(주)
- 변경후 : (주)스마텔

— 대표이사

- 변경전 : 문종석 대표이사

- 변경후 : 손홍영 대표이사

▶ 대성전기(주) 사옥이전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43-5
(반월공단 8-27 빌딩)
- T E L : (0345)494-1141, 495-1151
- F A X : (0345)495-4887, 4888

진흥회 4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4. 2	APEC내 가전제품의 무관세화 등 범범사 례 조사	본회 박재인상무 등 가전업체 4명	가 전 과
4. 3	CPT 대책회의	오리온전기, LG전자, 삼성전관	국 제 부
4. 4	세탁기 표준화 회의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가 전 과
4. 8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전경련회관 3층)	정보산업과
4. 8	한 EU 상호인증 협의관련 업계의견 수렴 회의	(통상부 중회의실)	국 제 부
4. 9	PC마케팅 부서장 회의	태일정밀(주), 삼보컴퓨터, 효성T&C, 대 우통신, LGIBM	정보산업과
4. 10	전해컨텐츠 표준화 회의	삼화전기, 대우전자부품, 삼영전자, 삼성전기	부 품 과
4. 10	가전 환경정책 관련 간담회	환경부 재활용과장 등	환 경 과
4.11	C-TV 수입금지 대책수립 가전업체 대책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팔레스호텔)	가 전 과
4.14	저가 소니TV의 문제점 홍보 기자간담회	매일경제TV, 기자 등 21명(본회 회의실)	가 전 과
4.16	가전업체 애로·건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통산부, 재경원	가 전 과
4.17	자기미디어협의회 임원회의	SKM, 새한미디어, LG전자, 코오롱, SKM, 효성생활산업	부 품 과
4.18	제21회 본회 창립기념 행사	본회 전직원	총 무 부
4.18	북미산 C-TV 수입관련 대책회의	통산부 수입과장 등 경찰청, 관세청 가전 3사	가 전 과
4.18	리사이클센터 추진 실무위원회	엘지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환 경 과
4.18~4.29	'97. 1차 산업기술자금 신청사업자 및 완 료사업자 확인실시	(주)DI등 38개사	개발지원과
4.21~4.29	완료 확인실사	(주)ED등 22개사	개발지원과
4.22	에너지비용 표시제도 도입관련 대책회의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업무부서장 (본회 대회의실)	가 전 과
4.23	전자의료기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회의	동아X선, 메디슨, 로알메디컬, 한신메디 컬, 서울센트럴, 대화기기 등	산업전자과
4.23	가전업체 현안 대책회의	통상산업부, 가전3사, 업무담당 부서장 (본회 회의실)	가 전 과
4.23	통계업무 발전대책 추진팀 1차회의		통 계 과
4.23	산업피해구제 대책회의	국제전열, 코발트전기 등	국 제 부
4.23	통신산업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해태전자, KEC, 대우통신, 한화정보통신, LG정보통신, K.D.S(팔레스호텔)	산업전자과
4.24	C-TV용 리모콘 모듈 표준화 회의	LG전자, 삼성전기, 대우전자, 세일반도 체, LG전자 등 원광전기	부 품 과
4.24	마그네트론 기술표준화 워크샵 자동화기기 등 관세감면 건의 및 홍보	국제특허 연수원(대전)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형명등록과 기 획 과
4.25	대전첨단전자전 참가업체회의	(본회 회의실)	국 제 부
4.25	중합유선방송용 전송기기 산업발전을 위 한 건의	필립스전자, 태일정밀 등 80여개사	산업전자과
4.29	'97 산기자금(SW) 심의회		개발지원과
4.29~4.30	IEC TC-39 WG 1, 2 및 기술표준화 위 원회, 음극선관등록심의회 회의	(경주 교육 문화회관 회의실) 삼성전관, 삼성코닝, LG전자, 오리온전기, 한국전기초자	형명등록과
4.30	리사이클센터 설비 설명회	가전3사(사업단 회의실)	환 경 과
4.30	통신장비 조달 제도상의 애로개선 추진 업체회의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산업전자과